

##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

이번에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 40돐이 되는 뜻깊은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를 가지였습니다.

이 기회에 모든 대회참가자들과 전체 당원들의 일치한 마음을 담아 백진백승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나는 대회를 통하여 온 나라의 일터와 초소들에서 혁명의 나팔수, 시대의 선도자로서 심장의 피를 끓이며 헌신분투하여온 대회참가자들과 전당의 사상일군들, 전국의 초급선진일군들에게 조선로동당 제1비서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당력사에서 전례없는 규모로 소집된 이번 사상일군대회는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을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 재확인하고 사상전의 포성을 높이 울려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리정표로 될것입니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사상이며 또한 유일한 무기도 사상입니다. 사상이 없이는 당이 태어날수도 존재할수도 없으며 사상사업을 내놓은 당사업과 혁명투쟁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명맥이 지켜지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이 전진합니다.

적수공권으로 시작한 조선혁명에서 유일무이한 무기는 위대한 혁명사상이었습니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사상의 힘으로 동지를 얻고 무기도 해결하였으며 사상의 힘으로 제국주의강적들을 타승하고 부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습니다.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당의 력사에도 우리 혁명과 같이 첫걸음부터 자기의 확고한 지도사상을 가지고 시작한 혁명, 사상을 위대한 투쟁과 변혁의 강력한 힘으로 전환시킨 혁명은 없습니다.

조선혁명의 전 로정은 사실상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 안고있는 진리의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력사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혁명에서는 사상사업이 언제나 첫째가는 중대사로 나서고 혁명의 개척기에 벌써 사상사업의 위대한 전통이 마련되었습니다.

혁명명도의 전기간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시고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만사를 해결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혁명은 력사의 생눈길을 헤쳐오면서도 자기의 기발에 승리만을 아로새길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양양시켜 혁명의 승배와 진위를 판 가리하는 시련의 고비를 혁명의 일대 고조기로 전환시켰으며 우리 혁명은 사상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큰 산을 하나씩 넘어왔습니다.

사상의 힘으로 혁명의 전환적극면을 열어온 우리 당의 력사에서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는 특별히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것은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진로를 뚜렷이 명시하고 그 수행에로 천만군민을 총력기시킨 정치적사면이었습니다.

우리는 김일성주의화하는 력사적인 진군길에서 혁명적당건설력사상 처음으로 사상과 명도의 유일성을 실현한 강위력한 정치적참모부,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높이 들고나가는 불패의 혁명무력, 일심단결된 전투대오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력사는 시대와 교조의 뿌리가 깊숙이 박혀있던 이 땅우에 어떻게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이 일떠섰으며

세계적인 정치적동란과 제국주의의 악랄한 고립압살 책동에도 끄떡없는 사회주의강령보루가 솟아올랐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인류는 오늘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에서 자기들이 나갈 길을 찾고있습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상, 자주의 혁명학설은 지구상의 그 어느곳에서나 참된 자유와 행복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념으로, 투쟁의 기발로 나뉘고있습니다.

온 세계가 우리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이 태어난 조국에서 수심성상 그 위대한 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혁명하여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고 의지이며 시대와 력사의 뜻입니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들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는 사업에서 기수는 사상일군들입니다.

모든 사회성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만드는 사업은 물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투쟁도 사상사업의 성과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동무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상일군대회를 몸소 조직하시고 전국의 당선전일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합니다.

당사상전에 먼저 불을 지피고 사상사업의 화력을 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우리 혁명의 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사상공세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 하기 위한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추동한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전국을 일시에 들끓게 할수 있는 강력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이 있습니다.

주체의 사상론, 이 위력한 무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자는것이 이번 대회의 기본정신입니다.

우리 당중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우리 당사상사업의 총책임무로 나서고있는 현실적

요구로부터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합니다.

나는 모든 대회참가자들과 전당의 사상일군들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의 사상적기수로서의 영예와 책임감을 안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의 힘, 천만군민의 무궁무진한 정신의 힘을 백배천배로 분출시키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현시기 당사상사업부문에 나서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데 당사상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자고 하는것은 혁명의 정치적참모부인 당의 통일단결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고 우리 인민의 꿈과 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데 있습니다.

지금은 당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을 더욱 철통같이 묶어세워 혁명앞에 조성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중대한 시기이며 천만군민의 애국의 열정과 지혜와 슬기를 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기 위함에도 최대한 지향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 력사적과제를 가장 용의주도하게,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한 사상체계, 지도체계가 바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입니다.

우리 당사상사업은 마땅히 현시기 당앞에 나선 기본임무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조직들에서 일하는것을 보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말로만, 문건으로만 하는 편향이 나타나고있습니다.

당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문헌접수로의 사업을 전당적으로 진행하고 학습과 강연도 하고 결의도 많이 다졌지만 실제 당안에서 현대판종파가 발생한것을 미연에 적발분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있고 가장 정당한 로선과 정책이 있으며 당조직들과 훌륭한 인민이 있는데 당안에서 또다시 종파가 나타난것은 우리 사상일군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현대판종파의 정체는 밖으로는 제국주의자들의

암력에 겁을 먹고 안으로는 부르조아사상문화에 오염된 타락한 사상적변질체라는것입니다.

당 유일적령도체계에 도전하는 분파행위는 바로 사상의 변질로부터 시작되며 사상적배신자들이 가담게 되는 종착점은 다름아닌 반당, 반혁명입니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 이것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이며 핵심입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목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인민대중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드는것입니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는 언제나 일치하며 우리 인민이 리해하지 못하고 접수하지 못할 로선과 정책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전당적으로 다시 한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환히 꿰들도록 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으로부터 사상공세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은 유일사상교양의 훌륭한 교재이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집대성되어있는 대백과전서입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인들이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들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하면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 우리 당의 혁명전통과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으며 새로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도 깊이

파악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에 통통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의 신조로 삼도록 교양사업을 짜고드는것이 중요합니다.

매 시기 제시되는 당정책도 대중이 스스로 공감하고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일수 있게 론리정연하고 설득력있게 해설선전하여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어디 가면 물을 마실수 있다고 알려주는것처럼 사람들이 알고싶어하는것, 듣고싶어하는것을 당정책에 립각하여 귀에 쫄속 들어가게 선전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앞으로 어느 단위에 가서 누구를 만나 물어보아도 당에서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제 집안일처럼 환히 알고있으면 그 단위는 사상사업이 잘되고 유일적령도체계가 서있다고 평가할수 있습니다.

사상사업에서는 《특수》를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굴러가는 돌에도 이끼가 낀다고 특수화되면 썩기마련입니다. 당에서 맡겨준 임무에는 특수한것이 있을수 있지만 사상생활을 게을리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몰라도 되는 《특수》란 우리 당안에 있을수 없습니다. 특수한 단위일수록 사상사업을 더 강도높이 하여야 하며 사상투쟁의 용광로속에서 강철로 단련시켜야 합니다.

사상일군이라면 사람들의 눈빛만 보고도 색다른 요소를 간파할줄 알아야 합니다. 당에서 일단 결론한 문제를 총정하려고 하는 현상, 우리 당의 령도업적들을 옳으로 옳으로 훼손시키는 현상, 당적, 계급적원칙에서 탈선하여 우리 내부에 쉬를 쏟게 하는 요소들에 대하여는 밀부리까지 파헤쳐 제때에 사상의 수술칼을 들이대야 합니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사업을 실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사상은 혁명적전사나 맹세보다 실천과 결과에서 나타납니다. 말은 적게 하여도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관철해내는 사람이 당의 사상을 신념화한 사람입니다.



#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

1 면 에 서 계 속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지난해 마식령에서 승리의 개가를 울린 군인건설자들은 당중앙이 세계앞에 선포한 시간은 순간도 드릴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위 하였습니다.

장령으로부터 전사에 이르기까지 최고사령관 명령을 관철하겠다는 오직 하나의 지향으로 심장을 불태우도록 사상사업을 립체적으로, 공세적으로 벌린 인민군대의 현장정치사업은 당의 유일적평등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전의 훌륭한 모범으로 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 당의 새로운 병진위선과 방침관철정형을 놓고 집행하지 못한것은 어떤것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사상적으로 분석총화하고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포성을 높이 울려야 합니다.

당의 유일적평등체계 확립을 위한 사상공세에서 주타격대상은 당정책을 말로만 외우고 즉시집행하지 않는 일군들의 그릇된 사상관념과 사업태도입니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자기 지역에 있어서 당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도 그만, 인민들이 생활상고충을 겪어도 그만인 일군들의 사상적병집에 투쟁의 불을 걸어야 합니다. 패배주의와 보신주의, 형식주의와 상요령주의, 무책임성과 본위주의와 같은 불건전한 사상요소를 뿌리채 들어기 위한 교양과 투쟁을 방법론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당선전부문과 당조직부문이 배합작전을 치밀하게 잘하고 사상전에 법적투쟁을 따라세워 그 효과를 최대로 높여야 합니다.

현대관중과를 청산하고 당중앙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역세게 걸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양양된 정신력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로 떠오르도록 하여야 하였습니다.

력사적으로 보아도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이후 반당반혁명종파도당을 숙청한 다음 조국해방전쟁이 위대한 승리로 결국되었고 1956년 8월총과를 제기하면서 천리마대고조가 일어났으며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에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폭로분쇄한 이후에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공업화실현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승리가 이룩되었습니다.

당사상선전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전세대를 거쳐 혁명적대고조로 당중앙을 옹위하는 돌격전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힘있게 불려일으켜야 합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의 두리에 성벽을 쌓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양양이 일어나면 일부 신념이 떨떨한 사람들, 동요분자들도 다 정신을 차리게 될것이며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평등체계가 반석같이 다져지게 될것입니다.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또한 사회주의수호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키는것입니다.

사회주의는 어제도 오늘도 인류의 리상이며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주적인민의 존엄과 사회주의의 운명을 걸고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공세를 물리치면서 력사의 생생길을 헤쳐나가고있습니다. 오늘에 와서 사회주의의 진로와 그 승리의 필연성은 조선혁명가들의 투쟁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니고있는 이 영광스러운 력사적사명을 수행하는데서 당의 붉은 정수분자들이 사상일군들은 꺼지지 않는 해불이 되고 우렁찬 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오늘날 사회주의수호전의 본질과 성격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하였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우리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으로부터 우리의 사상과 체도를 지켜내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당은 농업전선도 과학전선도 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내세우고있습니다. 이것은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전장에서뿐만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살고있는 모든 곳에서 제국주의와의 보이지 않는 대결과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있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것입니다. 이미 달성한 성과에 대하여 자화자찬하면서 혁명과 건설에 박차를 가하지 않고 인민들에게 실지 혜택을 주지 못하면 사회주의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흥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고도로 발양시켜 하루빨리 강성국가를 일떠세움으로써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강성국가건설에서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더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전을 박력있게 벌려야 하였습니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초석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천하지대본입니다. 최근에 조국강산을 진감시키며 련이어

일어난 눈부신 기적은 그 어느것이나 다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산물입니다.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강화해 나가는데서 주동이 되고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국보위에서나 사회주의건설에서나 사상강군의 위력을 높이 떨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군대내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에서는 조선의 결심은 곧 실천이며 현실이라는것을 백철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증명한 혁명강군의 자랑찬 력사를 이어 《마식령속도》와 같은 시대를 계속 창조해나가며 사회의 당조직들에서는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적들과 총결사전을 벌려야 할 때가 오면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민대단결의 위력, 전민향쟁의 위력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힘있게 벌려야 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미 위대한 전환의 1970년대에 전인민적인 집단적혁신운동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은 귀중한 경험을 가지고있습니다.

혁명의 복소리,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가 높이 울리던 1970년대에 우리는 미제의 대규모전쟁연습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조국청사에 일찌기 없었던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계체도를 폐지하고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발전도상나라들과 싸우는 인민들에게 막대한 지원을 주었습니다.

우리 당은 경제강국, 문명국건설도 바로 1970년대처럼 사회주의위력, 집단주의위력을 발양시켜 빼앗겨야 할 자는 없었습니다.

인민군대와 사회에서 오종훈7현대청호쟁취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리며 부문별, 단위별, 지역별, 단계별로 맹렬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온 나라에 집단적경쟁열풍이 휘몰아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지금 군대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불씨로 하여 련대적혁신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사상일군들은 시대의 앞장에서 나가는 전형단위를 창조하는데서도, 전형단위들을 따라앞서기 위한 경쟁을 벌리는데서도 대중의 창조적열의와 적극성을 발동시키는데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세도와 판로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의 도수를 높여 모든 일군들이 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집단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기동, 대중적혁신운동의 힘있는 척후병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력사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그 위력이 뚜렷이 검증된 자력갱생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에 힘을 넣어야 하였습니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 력사를 뒤여쩌면 자력갱생이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날에 우리 당과 인민은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을 겪었지만 수천년민족사를 다하여서도 누릴수 없었던 모든 영광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력의 원력을 포기하였다면 주체의 사회주의는 지구상에 태어나지도 못하였을것이며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함께 우리의 국호도 빛을 잃었을것입니다. 자력갱생 궤도에서 폐허에 천리마가 날아올랐고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이 탄생하는 민족사적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상일군들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우리의 사회주의건설력사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자력갱생이 강성국가건설의 진로라는것을 똑똑히 심어주어야 합니다.

자력갱생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이며 최첨단돌파의 정신입니다. 맨손으로 트랙토르와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낸 그 투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을 줄기차게 이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누구나 최첨단돌파전은 바로 자기 초소와 일터에서 자기들이 벌려야 한다는것을 자각하고 우리 조국의 모든것을 세계에 없는 사회주의체제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선전선동공세를 벌려야 합니다. 첨단기술을 독점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파궤기를 내고 최신과학기술을 우리의것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사상적으로 떠밀어주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자력갱생의 대진군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의 혁명적 지를 굳건히 지키도록 적극 고무추동하는것이 중요함입니다. 전사회적인 과학중시기풍, 전민과학기술인제화의 선봉을 일으키는데서 사상일군들이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를 기어이 말살하려는 제국주의반동세력을 사상정적으로 타도하기 위한 선전공세를 전개하여야 하였습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반공화국체제압살책동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한편 흑백을 전도하는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고있으며 우리 군인들과 청소년들을 노리고 썩어빠진 반동사상문화를 쉬임없이 들이밀고있습니다. 지난날에는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침략의 길잡이였다면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을 놓고있습니다.

사회주의수호전은 외부적으로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나서는 제국주의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제압

하고 내부적으로는 비사회주의와 퇴폐적인 사상문화를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쓸어버리는 공격전으로 되어야 합니다.

사상일군들은 우리의 사상과 위업의 정당성을 널리 선전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취약성과 추악한 정체를 날날이 발가놓는 단수높은 대적언론전, 전과전으로 적들의 기를 꺾어놓아야 합니다. 현수들에게는 철추를 내리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필승의 신심을 주는 사상의 미사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적들이 끈질기게 들이치는 자본주의독소가 우리 지경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2중3중으로 든든히 치면서도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주동적인 작전을 전개하여야 하였습니다.

원래 근로하는 인민대중은 본성적으로 황금만능, 약육강식을 설교하는 부르조아사상문화를 배척합니다. 인민대중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담겨져있고 민족적향취가 넘쳐나는 우리 식의 건전하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과 기사, 편집물들을 더 많이 창작보급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부르조아사상문화에 등을 돌려대게 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인류가 달성한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도용하여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대대적으로 류포시키는데 대처하여 인터넷망을 우리 사상과 문화의 선전마당으로 만들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야 합니다.

사상사업부문과 련관단위들에서 대중 및 대외선전수단들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근거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당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야 하였습니다. 사상사업에서 우리 당의 전략전술은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온 나라가 혁명적대고조의 불도기기로 부글부글 끓게 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의 사상전지는 방어형이 아니라 공격형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온 사회를 로동당의 붉은 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상교양사업도 진공적으로 벌리고 천만국민의 정신력을 불려일으키는 정치사업도 화선식으로 벌리며 온갖 잡사상, 잡귀신들을 쓸어버리는 투쟁도 전격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자면 사상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패배주의적인 관념부터 뿌리뽑아야 합니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사상일군은 사상공세의 선두에 세워주어도 한걸음도 제발로 나갈수 없었습니다.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 소왕청과 처창즈의 결사항전의 정신이 평범한 나날에 나온것이 아니며 천리마의 전설과 속도전의 기적, 혁명적군인정신과 강계정신이 지금보다 형편이 좋아서 태어난것이 아닙니다.

동무들! 사상사업에서의 패배주의는 경제사업에서의 패배주의보다 더 위험합니다. 오늘의 사상공세는 사상일군들의 패배주의를 불사르는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사상사업을 하는 일군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사상의 무기를 메고 목적의식적으로 군중속에 들어가 함께 방도를 모색하는 적극적인 실천가, 헌신적인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무들이 지켜선 조국보위초소들과 공장과 농촌 그 어디에나 병사들과 인민들의 소박한 목소리에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묘술을 찾아내신 절세의 위인들의 탁월한 영도예술의 귀감이 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명도사를 교과서로 삼고 일해나간다면 막힐것도 모를것도 없을것이며 우리 당사상사업이 그대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거센 밀물이 될것입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편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야 합니다.

우선 이미 준비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사상사업을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당에서 새로운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면 교양, 강연, 선동말과도 출판보도수단들이 신속히 총동원되어 중앙의 일군들로부터 심심산골의 농장원들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상사업의 내용과 형식,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혁명파업수행에 지향시키고 북돋우쳐나가야 합니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퍼올리기 위한 목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사상사업은 또한 당의 목소리가 잠시도 중단없이 울리게 하고 사상투쟁을 계속 고조시켜 온갖 잡사상, 잡귀신들이 우리 내부에 발붙일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비유하여 말하면 비행장에 눈이 올 때 방사체결기로 활주로에 눈이 쌓이지 못하게 날려버리는것과 같습니다. 사상사업은 오본열도식, 행사식으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사업으로 때와 장소를 가림없이 진행하여 사람들이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당의 사상을 체득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색적인 사상조류와 생활양식을 쓸어

버리기 위한 사상투쟁도 멈춤없이 강도높이 벌려야 합니다. 여기서 판에 박은것처럼 같은 소리,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는것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사상사업에는 또한 사람들의 준비정도와 특성, 사상동향에 기초하여 사상전의 파격을 바로 정하고 적중한 수단과 방법을 적용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사람과의 사업은 어머니가 같은 피줄을 타고난 자식이지만 말아들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막내아들에게 하는 말이 다른것처럼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습니다. 사상일군들은 자기 단위에 만명의 종업원이 있다고 해도 매 사람의 머리를 손금보듯이 들여다보아야 하며 만가지 처방을 가지고 사업하여야 합니다.

우리 혁명의 길은 순란치 않으며 혁명전선마다에서 견결한 혁명정신을 빼어 사무치게 간직한 참되고 준비된 사상일군들을 부르고있습니다.

사실 우리 당선전일군들과 교양망, 강연망, 선동망에 망라되어있는 초급선전일군들의 력량이 대단합니다. 수천수만에 달하는 사상일군들만 잘 준비되어있어도 강력한 정예군단을 편성할수 있으며 이 력량이면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편의 영화나 한권의 글이 수천의 식량이나 수만발의 포탄을 대신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전사들가운데서도 사상전선을 지켜선 일군들을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시었으며 곁을 곁을 이끌어주고 고무해주셨습니다.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우리 당의 사상일군들은 한사람한사람이 다 원수들이 한개 사단이나 군단부위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모양은 소박하고 수수해도 심장의 고통은 언제나 당의 뜻으로 뉘고 온몸이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는 일군, 이것이 우리 당이 바라는 선전일군의 모습입니다. 사상일군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의 사상사업 원칙을 배고 죽는 진짜배기혁명가가 되어야 합니다. 당의 목소리를 제때에 알려주기 위해 하루반에도 수신키를 걷는 정신, 열백발을 매가며 당정책을 학습하고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열정이 사상일군들의 몸속에 배아 합니다.

인민판을 세우는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사상일군들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요구로 나섭니다. 우리 당선전일군들은 군중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서 배우며 인민의 수고를 값높이 헤아릴줄 아는 진정한 인민의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군중을 대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고 스승으로 섬긴 그 위대한 인민이 바로 자기앞에 있다는것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근로하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로동을 사랑 하는 정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일군들은 손에 기름을 묻히고 신발에 흙을 묻히면서 군중과 어울리는 것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었습니다.

사상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믿음을 한생의 제부로 간직하고 당정책을 한사람이라도 더 알게 하며 맡은 단위에서 집단적혁신이 일어나게 하는데서 사는 보람과 긍지를 느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느때나 당의 목소리를 듣고싶어하고 당정책을 생수를 들어 지지할 때 가슴을 찔러는 맛을 친금보다 더 소중한 여걸줄 아는 사람이 참된 사상일군입니다.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발걸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와 우렁찬 혁명가요가 울리고 로동당탄생소리, 사회주의탄생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것은 당에 큰 힘으로 됩니다.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고 모든 일군들이 다 정치사업을 하여야 하였습니다.

당일군이건 행정경제일군이건 초급일군이건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것을 기본철칙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응당한 힘을 넣어야 합니다. 특히 도, 시, 군당책임비서들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책임일군들이 사상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품을 들여 진지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당의 명도밑에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을 발동시키고 혁신의 불길을 지퍼올리던 1970년대의 약동하는 기상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동지들! 우리앞에 나선 혁명파업은 방대하며 정세는 의연히 준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앞당겨 비약하여야 하며 투쟁속에 항상 전진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대회장을 나서서 길로 병사대중과 인민들속에서 들어가 당중앙의 의도를 알려주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사상공세의 출발진지를 차지하여야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사상전선이 들끓는것만큼 대중의 정신력이 폭발하며 천만국민이 일어선것만큼 혁명이 전진합니다.

나는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사상일군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형의 정치활동가가 되어 전국을 들끓게 하고 전군을 혁명화함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앞당겨주리라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폐막

##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2일 회의가 25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기치로 높이 추켜드시고 사상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대회 참가자들에게 뜻깊이 답례하시며 당사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해온 그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계속되였다.

삼지연혁명사적관 과장 강정옥, 라선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림경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당위원회 비서 류도홍,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총장 리경진, 안주시당위원회 비서 황상철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주체의 사상론을 제시하시고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투쟁에 쌓아올리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사상리론의 위대성, 거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강조하고 지난 기간 당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결함들을 분석총화하였다.

그들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역사적시기에 당사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인식, 재확인하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데 화력을 총집중하여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짐으로써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빛나게

실현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사사업을 대중의 심장에 투쟁의 불, 애국의 불을 다는 살아 숨쉬는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강성국가건설에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할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대회장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진두에서 붉은기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제일기수, 진격의 나팔수가 될 전당 사상일군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쳤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을 마치시자 대회장에는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대회참가자들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실현에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대회합을 마련해주시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는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로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인 연설을 뚫어오르는 격정속에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형의 정치활동가가 되어 우리 당의 혁명사상의 힘, 천만군민의 정신의 힘을 분출시킴으로써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당사사업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총정의 결의로 가슴 불태웠다.

대회에서는 당에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장내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령적인 연설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의 구호들이 우렁차게 울려퍼졌다.

최태복동지가 폐회사를 하였다. 대회는 《조선로동당 만세》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장엄한 대진군을 힘있게 떠밀어나갈 우리 당사사업군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고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전환의 이정표를 마련한 역사적분수령으로서 우리 당과 혁명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폐막

##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어 강력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김평해동지, 박범기동지, 김창섭동지, 조연준동지, 김경옥동지, 리제일동지, 최희동지, 황병서동지, 동영일동지와 도당책임비서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참가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성공적으로 진행된 참가자들을 축하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상일군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당사상전선에서 사상포문을 일제히 열어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놓기 위한 장엄한 투쟁으로 전민군민을 총괄기시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라 천지를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을 좌우명으로 삼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의 기수, 시대의 나팔수로서의 본분을 다해감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데 한몸 다 바쳐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몸소 대회를

지도해주시었으며 자기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사회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해나가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당사상일군으로서의 사명감과 영예를 깊이 자각하고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진지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대회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력사에서 전례없는 규모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사상의 위력으로 우리 당과 혁명을 백전백승에 이끌어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천세만세 빛내이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켜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이정표를 마련한 뜻깊은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높은 열의속에 대회를

으로 삼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의 기수, 시대의 나팔수로서의 본분을 다해감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데 한몸 다 바쳐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 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